

오성환 교수 1주기 거시경제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2018년 11월 16일에 '오성환 교수 1주기 거시경제 세미나'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11월에 별세하신 오성환 교수를 기리기 위한 세미나로 정운찬 명예교수(서울대)를 포함하여 유가족 및 동료·후배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 다수가 참석하였다. 오성환 교수는 1955년생으로 숭문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1987년)하였다. 전공은 화폐금융론이며 미국 UCLA에서 조교수를 거쳐 1991년에 모교 경제학부로 부임하였다. 그 이후 1995년에 부교수, 2000년에 정교수로 승진하였다. 학교 보직으로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부 주간, 발전기금 상임이사, 기획실장, 경제학부장, 사회과학대학장, 평의원회 의원을 역임하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소영 교수(서울대)의 진행 하에 김대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여섯 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영식 교수(서울대)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Financial Stability 논문을 통해 중앙은행의 전자화폐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다음 발표자인 김용진 교수(아주대)는 Cities and Technology in Catching-up Economies: The City as a Laboratory for Innovation 논문을 통해 경제 성장에 있어 혁신을 도모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실험실로서의 도시 역할에 관해 설명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윤택 교수(서울대)는 A New Keynesian Model with Stochastic Choices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우현 교수(경희

대)는 Effects of Electricity Tariff Policy on the Korean Economy 논문을 통해 전기요금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였다. 다섯 번째 발표자인 김세직 교수(서울대)는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under a Synthesis Model of Endogenous and Neoclassical Growth 논문을 발표하였다.

세미나의 마지막 발표자인 조장옥 교수(서강대)는 오성환 교수의 업적을 회고하였다. 조장옥 교수에 의하면, 오성환 교수는 계량경제학부 편집위원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집위원, 계량경제학회의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편집위원, 금융개혁위원회 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등을 맡으며 학계와 사회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학문적 성과로는 화폐가 사용되는 환경 그리고 물물교환과 화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연구, 중앙은행의 행태에 대한 연구, 경기변동에서 기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그 논문들이 실린 학술지를 보면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등으로 이는 세계 최고 경제학 저널로서 그의 연구 업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조장옥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지순 명예교수(서울대)가 시작한 거시연구회에서 오성환 교수를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와 둘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이와 더불어 발표자 모두 오성환 교수와의 추억을 이야기했고 이런 시간을 통해 고인의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오성환 교수가 서울대 경제학부와 학계 그리고 동료·후배 교수들에게 남긴 흔적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소중히 기억될 것이다.

교수수상 및 동성

황윤재 교수, 국제응용계량경제학회 석학회원 선출



황윤재 교수가 국제응용계량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pplied Econometrics: IAAE)의 석학회원(Fellow)로 선출되었다. IAAE는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를 발행하는 세계적인 계량경제학회 중 하나이며 최근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4명의 학자들도 석학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병연 교수,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김병연 교수가 2018년 9월 17일에 대한민국학술원상(사회과학분야)을 수상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민국학술원상은 대한민국학술원이 국내 학술연구 진흥을 위해 세계 정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으로, 1955년부터 현재까지 총 25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우리 학술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이다. 김병연 교수는 북한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추리적, 단편적으로 연구되던 북한경제를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북한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승주 교수, 학술지 Science에 논문 게재



최승주 교수가 학술지 Science에 The Role of Education Interventions in Improving Economic Rationality (with Hyuncheol Bryant Kim, Booyuel Kim, and Cristian Pop-Eleches) 논문을 게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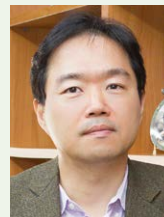
본 논문은 교육이 인간의 경제 의사 결정의 수준 혹은 경제적 합리성을 향상시키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경제적 합리성이란 사람들이 금전적인 유인을 획득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들이 얼마나 일관적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측정되는데, 연구팀은 1년 교육지원사업의 무작위통제배정과 더불어 현실의 경제적 선택을 반영한 랩 실험(laboratory experiments)을 이용하여 교육이 교육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과적 측면에서 입증하였다.

최승주 교수, 제7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



최승주 교수가 2018년 10월 12일에 제7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수상하였다. 다산경제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만 45세 이하의 역량 있는 경제학자 중 최승주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인간의 합리성 제약 정도를 실험경제학 방법론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경제적 성과와 연결하는 실험·행태경제학 분야의 연구를 높이 평가했다. 다산경제학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기리고 경제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1982년에 제정됐다.

김진우 교수, 학술지 Econometrica에 논문 게재



김진우 교수가 세계 최고의 경제학 학술지 중 하나인 Econometrica에 논문 Stable Matching in Large Economics (with Yeon-Koo Che and Fuhito Kojima)를 게재하였다.

본 논문은 매칭이론의 핵심 균형 개념인 “안정성(stability)”을 만족하는 매칭의 존재여부를 연구한 논문이다. 특히 많은 수의 인원을 매칭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매칭의 존재가능성을 규명하고 있다. 공립학교 학생 배정, 인터넷/레지던트 배정 등과 같은 큰 매칭시장을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매칭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칭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라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칭시장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선호에 대한 매우 약한 가정하에서도 안정적인 매칭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이 결과는 안정적인 매칭의 존재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는 매칭 시장 설계 연구에 긍정적이고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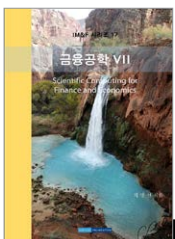
홍석철 교수 승진



홍석철 교수가 2018년 9월 1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였다. 홍석철 교수는 2007년 시카고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6년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하였다. 홍석철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경제사이며, 2018년 4월에 제48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 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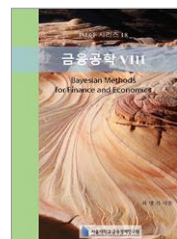
교수 신간 안내

금융공학 VII: Scientific Computing for Finance and Economics



최병선 지음
김구재단(2018년 3월 26일 출간)
금융공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금융공학 VIII: Bayesian Methods for Finance and Economics



최병선 지음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2018년 11월 30일 출간)
금융공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경제학부 학술행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는 매 학기 김태성 세미나, BK21 세미나, SURE(SNU Research in Economics) 세미나, H-Trio(Health, History, and Human Capital) 세미나, CDJ(분배정의연구센터) 세미나, CEBSS(실

험행동사회과학센터)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각 세미나에 대한 정보는 경제학부 홈페이지(<http://econ.snu.ac.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면에서는 여러 세미나 중 일부만 소개해 드립니다.

SNU Research in Economics



2019년 1월 22일 김성룡 교수의 SURE 대학원생 특강

경제학부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선도 중점학과(부)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SNU Research in Economics(약자로 SURE)라는 명칭으로 다양한 세미나와 특강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에는 제3회 SNU Research in Economics Conference가 거시경제학과 노동경제학 분야로 나뉘어 개최되었다. 먼저 거시경제학 분야는 발표자로 박신영(아시아개발은행), 장유순(인디애나대), 박정재(이화 싱가포르국립대), 조인환 그리고 노동경제학 분야는 발표자로 Uta Schönberg(이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와 Richard Blundell가 참석하여 각자의 논문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위 세미나와는 별개로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4회에 걸쳐 SURE 대학원생 특강이 개최되었다. 이 특강은 대학원생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 흐름과 최신 연구 동향 소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의 강연자로는 이동훈(FRB뉴욕), 허세원(FRB클리블랜드), 김수현(조지아공대), 최현수(싱가포르경영대), 홍지희(IMF), 김성룡(존스홉킨스대)이 초청되었다.

분배정의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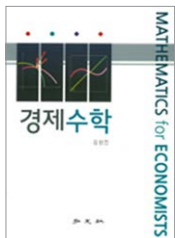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컨퍼런스 모습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에서는 분배 정의, 소득 분배 및 불평등을 주제로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핵심 연구 영역은 ①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 이론, ② 불평등과 재분배, ③ 실험적 사회 과학과 정책 분석, ④ 다문화 사회와 사회적 응집력이다.

2018년 하반기에 개최한 주요 행사로는 노동시장과 삶의 질 정책워크숍(2018년 9월 7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컨퍼런스(2018년 12월 13일, 반포메리어트호텔), 포용적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 정책 컨퍼런스(2019년 1월 22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가 있다.

경제수학



김완진 지음
홍문사(2018년 9월 5일 출간)
경제수학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류덕현, 경제추격연구소 외 지음
21세기북스(2018년 11월 5일 출간)

“2019 한국경제 대전망,의 경제석학 34인은 한국 내 경기 전망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19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김성진, 김안나, 박정민, 이봉주, 이우진, 이철희, 주병기, 홍석철 지음
울국출판사(2018년 6월 20일 출간)

이 책의 집필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려면 분배의 공정성과 그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이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하여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덟 개의 주제(삶의 질과 불평등,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가계부채와 삶의 질, 분배적 정의와 아동복지, 의료혁신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 한국의 고령빈곤, 교육과 소득의 기회불평등, 한국의 복지와 재정건전성)를 선정하여 이 책을 구성하였다.

신임 장용성 교수 인사말



장용성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과 85학번으로 전공 분야는 거시 경제학입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 조교수와 리치몬드 연방은행 선임 경제학자로 근무 후 2004년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했습니다. 2007년 모교를 떠나 로체스터대학과 연세대학교를 오가며 연구와 강의를 하다가 2018년 가을학기부터 다시 돌아와 인사 드리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10년간 경제학부의 괄목상대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동문 여러분들과 동료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 변동 및 노동시장의 동태적 분석이 주 관심 분야이며, 지난 15년간은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일반 균형 모형(Heterogeneous Agents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특정 시장이나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 경제학과 달리, 거시 경제학은 여러 개의 시장과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자연히 모형이 커지고 복잡해지기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선호나 생산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곤 합니다. 이를 동질적 경제 주체 혹은 대표적 가계로 이루어진 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이라고 부르며, 1990년대 후반까지 거시 경제 모형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컴퓨터를 이용한 연산 능력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산성과 선호가 다른 기업 또는 가계들로 구성된 경제의 일반 균형 계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트북 컴퓨터만으로도 50만 명으로 이루어진 모형 경제의 균형이 30분 이내에 계산됩니다.

공상 과학 영화 '스타트랙'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인공지능 로봇 "Mr. Data"를 시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simulation, 모의실험)해 본 후 이를 토대로 함정이 결정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거시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도 모형의 파라미터를 설정한 후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 영화 장면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비동질적 경제 주체 모형은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소득 불평등 이슈를 분석하기에 매우 유용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 주체 간의 정치적 균형과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DI 등 국책 연구기관들이 한국 경제 현실에 맞는 이질적 경제 주체 모형 개발에 착수하였고 조만간 정책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의 또 다른 모교인 로체스터대학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동쪽으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전체 학생 수가 9천명(학부생 5천명, 대학원생 4천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 74년 경제학박사), 201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Donna Strickland, 89년 물리학박사) 등을 배출한 연구 중심 대학입

니다.

이곳 경제학과는 역사는 짧지만 아카데미한 학풍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Paul Romer)가 로체스터대학 조교수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폴 로머는 조교수로 임용된 후 3년간 발표한 논문이 단 한 편 밖에 없었습니다. 재임용을 논의하는 교수회의에서 재임용은 해주되, 구두 경고 메시지를 주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당시 학과장이던 (일반 균형 이론의 선구자) 라이오넬 맥킨지 교수께서 이를 반박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좀 더 두고 보자. 나는 폴이 노트라이터(note writer)가 되길 원치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짧은 논문들을 노트(note)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연구를 하려면 긴 호흡이 필요하니 재촉하지 말고 지켜보며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로부터 몇 년 후 지식의 상품화와 R&D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규명한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을 발표, 일약 스타로 떠오르며 곧바로 시카고 대학 정교수로 스카웃되어 영전했습니다. 노벨상도 사실상 이 한 편의 논문으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노벨상 선정 위원회는 모여서 논문 개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구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논의합니다.

요즘 정부의 대학 평가나 교수의 임용 및 승진 평가에 논문 수가 중요한 척도로 사용됩니다. 연구는 교육과 더불어 교수의 최우선 본분으로서, 당연히 논문이라는 객관적 결과물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좋은 논문을 아주 많이 쓸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구에서 홈런 타자가 삼진을 많이 당하듯이) 새로운 연구는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마련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구자들이 논문의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 풍조로 인해 (좋은 성과가 기대되던) 연구를 서둘러 마무리해 출간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학부는 어렵지만 높은 수준의 연구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된 (사실 한국에서 몇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께서 늘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학사 (1989)
- 서울대학교 경제학석사 (1991)
- 미국 로체스터 대학 경제학 박사 (1997)
-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1997-2003)
- 미국 리치몬드 연방은행 선임 경제학자 (2003-2004)
- 서울대 경제학부 부교수 (2004-2007)
- 로체스터대학 경제학과 교수 및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 (2007-2018)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2018 - 현재)
- 리치몬드 연방은행 방문교수 (2012 - 현재)

구직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 : 취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드리는 응원의 한마디



최인오 (학부 12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기고문에서 작년 한 해 동안의 구직 활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부생활의 많은 이야기 중에 굳이 취업 이야기를 선택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최근 몇 년간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난이 대두되면서 많은 학생분들께서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제가 먼저 취업시장에 뛰어든 친구, 선후배로서 비슷한 눈높이에서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의 경험, 신입사원으로서 경험들이 아직 생생

할 때 이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실업 19년 만에 최악”, “N포 세대” 등 시린 고용 한파에 대해 질리도록 들어오셨을 테지만, 그래도 통계자료보다 직접 듣고 경험한 사례들을 위주로 고용 현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작년에만 스물이 넘는 기업에 지원했고 6군데에서 최종 면접을 보았지만 전부 탈락했습니다. 올해 모 대기업 계열사는 20명의 최종면접자 가운데 단 한 명만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입사 이후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여러 해에 걸쳐 취업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대졸 공채 채용 인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있을 때일수록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체적인 구직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정보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직종, 직무마다 개성이 다르므로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금융, 증권업 위주로 지원했고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니, 본문을 읽으실 때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분	지원회사	지원 직무	최종 결과	비 고
증권사	산업은행	일반(경제)	면접 탈락	
	미래에셋대우	본사영업	서류 탈락	
	KB증권	본사영업	서류 탈락	
	삼성증권	본사영업	면접 탈락	
	한국투자증권	본사영업	서류 합격	
자산운용사	DB금융투자	본사영업	최종 합격	
	신영자산운용	일반(인턴)	서류 합격	면접 불참
금융정보업	연합인포맥스	일반(인턴)	서류 합격	면접 불참

먼저 서류 절차(자기소개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스펙이 좋다면 서류 절차에서 확실히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접 스타디나 실제 면접장에서 느낀 바로는, 면접관은 면접자의 능력보다는 캐릭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류 절차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자기소개서에서는 자격증 위주의 능력을 강조하기보다는, 독창적인 자신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이를 구체적인 스토리로 뒷받침하는 접근법이 더 주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장과정을 단계별로 ‘우직함’, ‘경쟁심’ 등의 이미지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행정고시와 금융공기업 준비 경험을 솔직하게 드러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얻은 경험들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보다 수다를 좋아하는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솔직

한 부분들에 대해 면접관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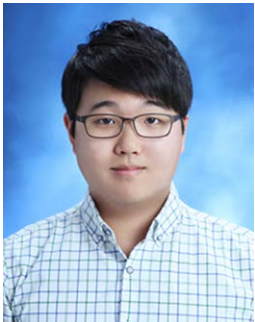
통상적으로 서류 절차 다음으로는 인성·적성 또는 직무적합성 검사를 봅니다. 하지만 위 단계는 대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양각색이므로, 바로 면접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면접장에서의 핵심은, 대답에 진정성을 담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준비해간 대답보다는, ‘인생’을 담은 솔직한 대답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리적이고 딱딱한 대답보다는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스토리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첫 두 번의 면접에서 탈락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면접장에서 저에게 어떤 질문들이 들어왔고, 제가 당시에 어떤 대답들을 했는지 떠올려보고 곰곰이 생각해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면접 당시 질문들을 되뇌어보면 면접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에서는 “지원자에게 직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삼중에서는 “증권업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인턴경험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전자는 저의 캐릭터가 귀 행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도를, 후자는 제가 증권업에 얼마나 진지한 마음가짐을 가졌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면접에서는 질문의 본질적인 의도를 파악하고 주어진 질문을 슬기롭게 재구성해서 대답하는 것, 다시 말해 진정성 있는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갓 연수를 마친 신입사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가을 말 여러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정말 절박하게 취업을 바랐습니다. 때때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고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따라서 최종합격 연락을 받았을 때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무척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정든 인간관계 그리고 익숙한 학교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에 문득 상실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복잡한 감정들은 저로 하여금 모처럼 “살아있다”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는 군 복학 이후 밖보다 도서관이 익숙했고 상당히 틀에 박힌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루한 생활 속에서 생동감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진감래 끝에 새로운 인생의 막을 맞이했고, 무척 다채로운 감정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힘들었던 시간만큼이나 성취감, 행복감 등 풍부한 순간을 만끽하실 것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저는 지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색다른 경험들을 해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보험, 생명, 반도체 그리고 IT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동기들을 만나면서, 제가 무척 좋아하는 수다도 많이 떨고 여러모로 안목을 넓히는 중입니다.

글을 마치기 전에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선은 취업난 속에서 자신만의 특색을 솔직히 드러내는 사람이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고생 속에 성장하고 그 끝에 분명 달콤한 과실을 얻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구직활동 간 서울대 경제학부라는 타이틀은 향기가 매우 진해서 오히려 가린 개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만의 독창적인 향기를 발산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특색을 진솔하게 풀어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학교를 오고 가는 길



안재범 (대학원 18학번)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통학의 문제였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보다 먼 사람도 분명 있겠지요)를 매일 다니는 것은 시간을 매일 2~3시간씩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혼자 나와서 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매일 적지 않은 통학 거리를 감당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6시 30분에 집에서 나와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기까지, 도로를 달리면서 대부분 하는 것은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다가 잠깐 눈을 감으면, 어느 순간 눈을 떠서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고, 또, 서울대입구역까지 지하철을 타다가 잠시 눈을 붙이면, 서울대입구역 안내방송을 알람 삼아 눈을 떠서 학교버스에 오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학교에 도착해서 공부하는 자리에 앉으면 다시 졸음이 쏟아집니다. 졸음을 쫓아가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나서게 되고, 이어폰과 음성 파일의 힘을 빌리거나, 다시 수면의 욕구에 순응하여 시간을 보내면 집에 오게 됩니다.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듯해도, 가끔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통학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중에는 낮익은 얼굴을 반갑게(혹은 반갑지 않게) 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다보면, 하루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해 눈을 붙이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무언가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자의 경우, 고단한 하루를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기 위해 잠시라도 눈을 붙이는 사람들일 것이겠지요. 필자처럼 긴 거리를 통학을 하면서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들이 속해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 혹은 일을 마치고 나서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더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짧은 시간이나마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Youtube나 각종 동영상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고 싶은 영상을 보거나, 음악 청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잠깐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물론 전화가 걸려온 상대와 열심히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공부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사람도 눈에 띄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 지하철이나 버스에 오른 사람

들의 손에는 주로 신문이나 책이 손에 있었지만,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에 복잡한 것을 눈으로 접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에, 앞서 언급했듯이 이어폰의 힘을 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짧게나마 눈을 붙이는 편입니다. 이어폰을 통해 요구하는 음악은 복잡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사운드가 강력한 락이나 메탈은 오히려 귀를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자음이 크게 사용되지 않는 통기타 연주곡 등이 주를 이룹니다. 이어폰의 세계에 빠지면, 음악 자체를 듣다가 어느 순간 생각의 주머니로 뛰어듭니다. 가볍게 '오늘 끝나면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던 날은 그 이슈를 복기하곤 합니다. 복기를 하면서 오늘 하루는 또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것이 잘 되었고, 어떤 것이 잘 안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눈에 낮익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잠시 고개를 돌려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긴 이동거리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학 시간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잘 보내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힘들고 고민되는 때가 바로 시험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시험 직전까지(밤을 새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보러 가야할지, 아니면 집에서 끝까지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보러 가야할지 한번쯤은 고민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속에서 '길에서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하지? 그냥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나?'라는 생각과, '그래도 집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공부 확실하게 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둘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시험을 볼 때마다 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자취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집에서 챙겨주시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녹아있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이 고민은 잠시 접어두게 되고, 어느 순간 시험이 끝나고 학기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잊게 됩니다. 그리고 학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똑같은 고민을 또 하고 있는 스스로를 봅니다.

도로 위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단순히 버려지는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장거리 통학은 당연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두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잠을 보충하는 것,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나아가 사색하는 것까지, 모두 이동하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학교를 오고가는 길을 잘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은 길 위를 이동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하루 24시간이 참 짧게 느껴집니다.

SFERS (www.sfers.com)

글: 이경호 (SFERS 회장, 학부 13학번)

1. 동아리 및 지도교수님 소개

• 동아리 소개



SFERS는 SNU Financial & Economic Research Seminar(서울대학교 금융 & 경제 연구 세미나)의 약자이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속 경제·금융 학술 동아리입니다. 2000년 11월 16일에 설립된 SFERS는 2019년 현재까지 매 학기마다 각종 경제이론과 지식들을 기반으로 현실경제의 여러 현안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여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SFERS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들 간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금융 및 경제 지식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을 통해, 금융 및 경제 전문가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미나와 같은 학술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선배와의 만남·LDT 등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제 간, 선후배간 상호 교류를 통하여 미래의 휴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SFERS는 경제학부뿐만 아니라 경영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 소속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회원들은 모두 경제·금융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종 공모전과 경시대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현재까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소 3학기로 되어있는 의무 활동 규정을 이수한 졸업회원들은 대학원 진학 및 유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정부기관, 금융권 공기업 및 사기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SFERS는 학기 중에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 외에도 서울대 외의 국내 대학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수의 대학들과 더불어 연합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에는 동경대학 Yoshikawa 세미나와 연합 세미나를 개최함과 동시에, 11월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경

대학,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히토쓰바시 대학 등 여덟 개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한국·일본 학술 세미나에도 서울대학교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지도교수님 소개

SFERS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황운재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가을학기부터 SFERS의 지도를 맡아주시고 계신 황운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계량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시며, SFER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원들의 연구에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주십니다.



2. 동아리 활동

• 정기 세미나

SFERS의 회원들은 매학기 지원을 통해 팀을 결성하며, 팀별로 금융 및 경제와 관련한 주제를 정해 한 학기 동안 연구·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연구결과를 학기 중 두 번에 걸친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미나는 SFERS의 가장 큰 행사로써, 이러한 정기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은 각 팀별 주제들에 관한 경제·금융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연구에 사용된 경제학적 직관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분석 기법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기세미나를 통해서 SFERS는 궁극적으로 금융 및 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의 큰 흐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교수님과 회원들로부터의 질의응답 시간과 사후 리뷰 세션 등을 통해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더욱 발전된 연구방법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정기 세미나의 장점입니다.

• 대외 세미나

SFERS는 정기 세미나 이외에 대외적으로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국내대학을 비롯하여 일본의 여러 대학들과 연합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경대학, 와세다대학교, 게이오대학교, 히토쓰바시대학 등 여덟 개의 학교가 참여하는 한국·일본 학술 세미나(8개 대학 연합 세미나)에 서울대학교 대표로 참가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참여하는 연합 세미나와 동경대학 Yoshikawa 세미

나와의 연합 세미나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은 새로운 학문적 자극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참가자들과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 커리어 멘토링, 선배들과의 만남 및 홈커밍데이



SFERS를 이수한 졸업회원들은 주로 대학원, 해외유학 등을 통해 학업을 계속하거나 금융권·사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멘토링은 이러한 휴먼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재 활동회원들이 이수한 졸업회원들로부터 자신의 진로를 상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회원들이 스스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각각 한 번씩 활동회원들과 이수한 졸업회원들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선배들과의 만남 및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SFERS의 인연이 동아리 이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LDT, 소풍 및 체육대회

SFERS에서는 매 학기마다 MT 형식의 LDT(Leadership Development Training)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신입회원들과 기존 활동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학기 소풍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학술에만 치우치지 않고 회원들끼리 친목도모도 할 수 있고 체력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신입회원 가입 안내

SFERS에서는 매 학기마다 신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면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학부에 3학기 이상 재학하였고 앞으로 3학기 이상 SFERS에서 활동이 가능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동아리홈페이지(www.sfers.com)나 sfers.recruiting@gmail.com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우리 경제학부는 2013년 하반기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 급 창의인재 양성(BRAIN KOREA 21 PLUS)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경제전문가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2013년9월1일~2015년8월31일)의 중간평가 결과 사회과학분야(경제/경영, 전국 단위) 최우수 사업단으로 평가 받았다.

2019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플러스사업단은 2018년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 BK21플러스/김태성기념세미나 14회
- ▶ BK21플러스/IER Public Seminar 2회
- ▶ BK21 플러스 H-Trio 워크숍 7회
- ▶ BK21플러스 공동주관 학술행사 3회
- ▶ BK21플러스 Brown Bag lunch 세미나 5회
- ▶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5회
- ▶ 국제학술대회참가경비지원 7회

BK21플러스/김태성 기념세미나

Dongho Song (Johns Hopkins University)
Fearing the Fed: How Wall Street Reads Main Street

Ryo Kambayashi (Hitotsubashi University)
Management Practice Meets Human Resource Management

Xavier Venel (Paris School of Economics and Paris 1)
Decomposition of Games: Some Strategic Considerations

Jongkwan Lee (KDI)
Do Immigrants Crowd Out Natives from Their Residential Neighborhoods? Evidence from Seoul, Korea

Xiuping Hua (Nottingham University Business School China)
Understanding Financing and Innovative Practices of Micro and Small Enterprises in China

Hwang Ilwoo (University of Miami)
Competitive Advertising and Pricing

Nazrul Islm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volution of State Owned and Controlled Enterprises in China: Compared with That in Sweden and Singapore

Russell Pittman (U.S. Department of Justice)
Pricing of Complements in the U.S. Freight Railroads: Cournot versus Coase

Hagen Kim (Texas A&M)
Ambiguity and Corporate Bond Prices

Rene van den Brink (VU University)
A Shapley Value for Games with Hierarchies and Communication Restrictions

Myongjin Kim (University of Oklahoma)
The Value of Relational Contracts in Outsourcing: Evidence from the 2008 Shock to the US Airline Industry

Hea Jung Hyun (Kyung Hee University)
Global Financial Crisis, Trade Credit Insurance and Scope Adjustment of Multiproduct Exporting Firms

Toru Horaki (Keio University)
On the Existence of Population Monotonic Payoff Allocations in Quasi-convex Games

Joon Y. Park (Indiana University), Yoosoon Chang (Indiana University)
Econometric Analysis of Functional Time Series and Its Applications in Macroeconomics and Finance

BK21플러스/IER Public Lecture Series

이진혁 (고려대학교)
Economic Interpre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Viewpoint of Structural Estimation

이정민 (서울대학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김대일 공제)

BK21플러스 H-Trio 워크숍

주하연 (서강대학교), 홍석철, 이정민, 이철희 (서울대학교), Christopher Paik (NYU-Abu Dhabi)
H-Trio Applied Microeconomics Summer Workshop

이명재 (고려대학교), 이석배 (Columbia University)
H-Trio 2018 Summer Boot Camp: 실전 계량경제학

이용석 (Stanford University)
Do University Entrepreneurship Programs Promote Entrepreneurship?

정종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박벼리, 윤현진, 김정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PROSEMINAR

주하연 (서강대학교)
Diffusion of E-Commerce and Retail Job Apocalypse: Evidence from Credit Card Data on Online Spending

고 선 (중앙대학교)
Ethnic Diversity and the Provision of Local Public Goods: Evidence from U.S. History

최자원 (한양대학교)
Evaluating a Structural Model of Labor Supply and Welfare Participation: Evidence from State Welfare Reform Experiments

BK21플러스사업단 공동주관 학술행사

경제학부 오성환 교수 1주기 거시경제 세미나
[서울대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경제연구소]

25th Seoul Journal of Economics International Symposium

[서울대 경제연구소, Center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BK21 플러스 사업단]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Conference

[서울대 경제학부, ADB, Korea Tourism Organization, KDI, CReA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한국노동경제학회, VisitSeoul.Net]

BK21PLUS Brown Bag Lunch Seminar

Gozde Gozlet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Family Law, Develop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of Muslim Females: A Cross National Study

윤현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Endogenous Tax's Saliency with Its Rate: Evidence from US Cigarette Sales Tax

김혜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Economic Costs of Diplomatic Conflict: Evidence from South Korea-China THAAD Dispute

손종익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Securitization and Financial Chains as Accelerator (증권화, 그리고 가속기로서 기능하는 금융 사슬)

김서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Will the KRW Appreciation Attack the Trade and Economy of the South Korea? : By Using the VAR Model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김상범 (서울대학교)
Overlapping Community Detection Using Bayesian Non-negative Matrix Factorization

허은지 (서울대학교)
Marriage and Gender Norm in South Korea

이정민 (서울대학교)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성별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

유인경 (서울대학교)
Health at Birth, Parental Investments, and Academic Outcomes

김국동 (서울대학교)
Econometrics and Machine Learning

BK21플러스사업단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김혜진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30th The European Association of Labour Economics Conference 2018" 참가 및 논문 "Evaluating the Impacts of a Geographically Targeted Wage Subsidy Program Using the Synthetic Control Method" 발표

장 학 금

장학금 수여

2018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908명 중 251명, 대학원생 134명 중 41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향상 장학금을 통해 3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373명, 대학원생 28명의 학생이 수혜를 받았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2회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제72회 후기학위수여식이 2018년 8월 29일(수)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경제학부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박사 6명, 석사 26명, 학사 31명(최우수 1명, 최우등 6명, 우등 16명)을 배출하였다.

2019학년도 전기 경제학부 대학원 모집

경제학부는 대학원 모집과 글로벌인재특별전형-대학원 모집을 통해 2019학년도 전기 신입 대학원생을 선발했다. 대학원 모집에서는 석사과정 지원자 14명, 석박통합과정 지원자 34명에 대하여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합격자를 선발한 뒤, 면접 및 구술고

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석사 10명, 석박통합 29명이 합격했다. 박사과정의 경우 지원자 3명에 대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3명 전원이 합격하였다. 글로벌인재특별전형의 경우 서류평가를 통해 총 10명의 지원자 중 3명의 석사과정생(뉴질랜드, 중국, 독일 국적)이 합격했다.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8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8년 12월 23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동계 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경제원론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경제수학', '정치경제학입문', '계량경제학'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8학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 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 군	-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Economy (Introduction to Economics) - Economics of Corporate Organization and Growth
이철인	Studies in Labor Economics
주병기	Advanced Microeconomics
Oyvind Thomassen	- Further Mathematics for Economics - Mathematics for Economics - Reading and Research
Gueron Yves	- Studies in Microeconomics - Microeconomics - Reading and Research
Dmitry A. Shapiro	- Advanced Economic Theory - Economics of Strategy - Reading and Research

학 부 행 사

'經友의 밤' 행사 개최



학생자치 동아리 '경제학부 서포터즈'의 주최로 2018년 11월 8일에 '經友의 밤' 행사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경제학부 교수와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경제학부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를 위해 매년 2학기(11월 중)에 개최된다.

동아리 수상

- 2018 통화정책 경시대회 동상 수상 (2018.8.14. SFERS 소속 박경무, 이용현, 이준모, 이준석 학생)
- 제17회 모의공정위 정연대회 장려상 수상 (2018.8.24. 법경제학연구회 LES)
- 제16회 한경 대학(원)생 경제논문 공모전 가작 수상 (2018.12.12. SFERS 소속 김지환, 이경호 학생)

(08면에서 이어집니다.)

황인영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30th The European Association of Labour Economics Conference 2018" 참가 및 논문 "Wage Dynamics of Workers with Temporary Job Experience: Wage Growth by Type of Job Transition" 발표

심세리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The 16th 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참가 및 논문 "The Impact of Foreign Exchange Reserve Accumulation on External Debt" 발표

김혜진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Conference" 참가 및 논문 "The Economic Costs of Diplomatic Conflict: Evidence from South Korea-China THAAD Dispute" 발표

황인영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Conference" 참가 및 논문 "The Effect of Non-regular Jobs on Labor Income Inequality Decomposition into Wage and Working Hours" 발표

오서정 (석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Conference" 참가 및 논문 "Parental Gender Norms and College Major Choice" 발표

박벼리 (석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Conference" 참가 및 논문 "An Investig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ycles and Health" 발표

● 경제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 2018. 8. 11. ~ 2019. 1. 25

1억원 이상

(유)프리미어파트너스 (정성인 대표이사)
(주)상영무역 (이종기 대표)

1천만원 이상

85학번 동기회
88학번 동기회
고학수 (경제 85)
권오규 (경제 71)
변양호 (무역 73)
송병락 (경제 59)
이상승 (경제 82)
이영훈 (경제 70)
이영훈 (경제 79)
재홍공서울대학교총동문회
정기준 (경제 60)
황규호 (경제 74)

5백만원 이상

박지형 (경제 86)
이필상 (초빙교수)
정영일 (경제 58)

정일석 (무역 81)
한일탱크터미널 (이성욱 대표이사)
홍기현 (경제 76)

1백만원 이상

강대창 (경제 86)
강상진 (경제 81)
강석규 (무역 81)
강창훈 (경제 81)
김대유 (무역 71)
김동환 (경제 81)
김병철 (경제 82)
김승탁 (경제 79)
김용범 (경제 81)
김용술 (경제 56)
김자봉 (경제 89)
김지환 (경제 79)
김태중 (경제 84)
나상욱 (무역 79)
류상민 (경제 86)
문상호 (국경 87)
박동욱 (경제 82)
박선주 (경제 00)

박 승 (경제 55)
배진규 (경제 53)
사공일 (상학 58)
서배수 (국경 84)
소병운 (경제 81)
손병두 (경제 60)
안철원 (경제 69)
왕석동 (경제 79)
유승민 (경제 76)
음용기 (경제 60)
이경직 (경제 86)
이대용 (경제 69)
이상영 (경제 81)
이수영 (경제 96)
장기남 (경제 61)
정경운 (경제 91)
정운진 (경제 83)
주순식 (경제 73)
진형준 (경제 81)
최연석 (경제 96)
표인수 (경제 77)
황신준 (경제 73)

1백만원 미만

강성모 (경제 81)
김규수 (경제 87)
김태호 (경제 86)
남봉현 (경제 81)
노성호 (경제 98)
박정호 (경제 13)
상지원 (경제 86)
성낙제 (경제 86)
신성휘 (경제 81)
신종현 (경제 12)
오종석 (경제 06)
유종일 (경제 77)
이경덕 (무역 74)
이운호 (경제 81)
이종호 (경제 12)
이창연 (경제 09)
정영엽 (경제 81)
최윤서 (경제 85)
황정길 (상학 62)

김수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특별 강연



경제학부는 김수이 대표의 특별강연을 2018년 11월 14일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하였다. 김수이 동문은 국제경제학과 92학번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캐나다공적연금

(CPP)을 운용하는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아시아·태평양 대표이다.

이번 행사는 경제학부 선배와의 만남의 일환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 김수이 대표는 회계사로 출발하여 스텐포드대 MBA와 컨설턴트 시절을 거쳐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었고, 또한 학생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Never give up.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곳에도 올라가지 못한다. 둘째, Positivity.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다. 셋째, Global mindset. 넓은 세계로 나가라.

그리고 캐나다 연금위원회 1층 복도에는 사회 구성원들(청소부, 선생님 등 일반적인 시민들)의 사진이 붙어있는데, 이는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상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실제로 연금위원회의 수익률이 좋았던 해에, 그 해 연금 수급자들에게 약 10만 원을 더 줄 수 있었고 이럴 때 마다 일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김수이 대표의 대답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예정된 75분의 특강은 마무리되었다.

“오늘을 만든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 모금 안내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경제학부와 경제학부 발전 위원회(회장: 권오규 전 부총리)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270억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석경제관 건립기금 100억 원을 기부해 주신 성기학 회장님을 비롯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목표 금액인 400억 원 달성을 위해 2019년에도 모금 활동을 지속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모금액은 아래 계획과 같이 우석경제관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과 연구 기금, 학생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헌/내/후 모금 사용 계획

우석경제관과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285억 원
한국경제혁신센터 설립과 운영	35억 원
연구 기금	30억 원
학생 지원	30억 원
제휴 및 융합 프로그램 운영	20억 원

경제학부는 가장 엄격한 회계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 집행할 것이고,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에 기록으로 남겨 오래도록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부자 예우

기부 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기념품 및 간행물 제공, 기부자 명예 헌정 및 예우, 학교시설 이용 편의, 서울대병원 진료 편의 서비스)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www.snu.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헌/내/후 기부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제학부 발전기금 홈페이지 <http://econ.snu.ac.kr/donation> 에서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한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 팩스 발송: 02-875-8860
 - 사진을 찍어 이메일 발송: kang97@snu.ac.kr
 - 우편 발송: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16동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사무국(206-1호)

경제학부 발전기금 담당자: 경제학부 강내영 행정실장
전화: 02-880-6361 이메일: kang97@snu.ac.kr

● 세제혜택

출연해주시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	법인 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경제학부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
공제 한도	개인 소득금액 100% 법인 소득금액 50%	소득금액 30% 소득금액 10%
해당기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동창회 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 비교

법정기부금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3,000만원×100%=3,000만원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1,000만원×15%=150만원
지정기부금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3,000만원×30%=900만원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함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900만원×15%=135만원

※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

•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공제세액 비교

구분	소득금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기 부 금 액	1백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5백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1천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5천만원	6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억원	600만원	1,200만원	2,700만원	2,700만원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59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경제연구소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세계경제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제37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1,000명 이상의 동문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하여,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은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의 주요 의제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토론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의 특전

-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 6개월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 2. 동창회 조직** : 본 과정 이수자들 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 및 ASP총동창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학기 중, 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ASP총동창회에서는 조찬세미나, 하계 해외연수 등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ASP 입학안내

- ① 모집인원** : 40명 내외
- ② 입학자격** : 1) 대기업의 임원 2) 중소기업의 대표
3) 주유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간부
5)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 ③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④ 모집시기** : [봄학기] 1~2월 [가을학기] 7~8월
- ⑤ 이수요건** : 강의 출석률 70% 이상
- ⑥ 모집안내** : - 전화: (02)880-5432 - 팩스: (02)888-4454
- 이메일: asp@snu.ac.kr - 홈페이지: http://ier.snu.ac.kr
- 주소: 우)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16동 523호)

ASP 36기 회원명단

- | | |
|-----------------------------|--------------------------------|
| 1. 계충민 가온미디어 부사장 | 11. 서정훈 가톨릭서울대교구 사제(수서동성당) |
| 2. 김남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장검사 | 12. 안병희 안병희회계사무소 대표 |
| 3. 김병곤 포스코건설 상무 | 13. 이상길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정책기획위원회 파견) |
| 4. 김찬년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 지사장 | 14. 이재복 신한은행 기업여신지원부 본부장 |
| 5. 김충우 금융감독원 검찰국장 | 15. 이창목 한국전력공사 UAE원전건설처 처장 |
| 6. 도기운 경북농협 본부장 | 16. 이철우 삼성증권 상무 |
| 7. 민태홍 아시아갤러리 대표화가 | 17. 조광진 IBK기업은행 창업벤처기업부 부장 |
| 8. 박대수 KT CR부문장 | 18. 한성수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 |
| 9. 박진석 금융보안원 융합보안부 부서장 | 19.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
| 10. 서동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시업본부 본부장 | |



〈ASP 36기 해외세미나 기념사진〉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편집조교에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수정의 경우 새 정보로 변경하고, 알리고 싶은 소식의 경우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판된 경제학부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